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41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6. 4. 27(월) 11:00 ~ 12:39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이범헌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대현 위 원 (인)
김상연 위 원 (인)
문삼화 위 원 (인)
서영수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임영욱 위 원 (인)
진 솔 위 원 (인)
차지언 위 원 (인)

1. 성 원 보 고

송시경 사무처장 : 예정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송시경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9기 8인의 위원님 위촉을 축하드리고요. 제418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호선을 위한 임시회의 추진을 위해 저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나섰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밑의 유인물이 있기는 합니다. 보면 순서는 현재 재직 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먼저 가, 나, 다 순으로 하고요. 새롭게 위촉되신 분들도 가, 나, 다 순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문모 위원님입니다.

성기숙 위원님입니다.

왕치선 위원님입니다.

참고로 세 분은 내년 7월 31일까지 임기가 주어졌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9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학 분야에 김대현 위원님입니다.

전통예술 분야에 김상연 위원님입니다.

연극 분야에 문삼화 위원님입니다.

연극 분야에 서영수 위원님입니다.

시각예술 분야에 이범현 위원님입니다.

전통예술 분야에 임영옥 위원님입니다.

음악 분야에 진솔 위원님입니다.

무용 분야에 차지연 위원님입니다.

저희 테이블 배치는 통상 나이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상임감사님으로 감사님이 계시는데요. 김성범 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예술위원회 사무처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소개)

송시경 사무처장 : 이렇게 직원들 소개까지 마쳤고요. 다음에 제대로 사무처 간부님들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오늘 회의는 관련자들만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무처 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주로 회의에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팀장이나 관련된 본부장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제418차 위원장 호선을 위한 임시회의 주제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4항에 근거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현재 참석하신 11인의 위원님들 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구문모 위원님께서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속기를 통해서 회의록과 속기록 모두 공개되는 회의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로 위원장 호선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기타 안건으로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위원으로서 임무와 기능은 어떤 식으로 하셔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OT를 먼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OT 이후 매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례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간간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서면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일정을 언제로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할지? 아시겠지만 저희들 본관이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할지에 대해 정하시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구문모 위원님을 의장석으로 모셔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구문모 위원 의장석으로 이동)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에 갈 때마다 연장자라고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연장자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미숙할 겁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초반에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18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진행하게 된 구문모 위원입니다.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성원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11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 결 사 항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위원회 임시회의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9대 위원장 호선의 건 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 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1204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9대 호선의 건입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기획조정팀장 정창호입니다. 위원님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에 따라서 위원장님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를 통해서 선출되는 9기 위원장님 호선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장 호선제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가 2005년 8월에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최초의 호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김병익 위원장님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공기관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요. 이후 2019년 1월에 저희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기재부의 직접 관리를 받는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는데 이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운법상의 기관장 임명 절차 적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24조에 따라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시면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에 제8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님들의 단독 추천과 만장일치로 정병국 위원장님이 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호선을 위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또한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 17조에 근거해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즉 11인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위원장이 호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선을 위한 위원장 후보자 선정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선 후보자 선정 절차는 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천이나 타천을 받아서 해당 위원님들께서 최종 수락을 하시면 후보자로 선정되시는 겁니다. 단, 구문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고 계신데요. 만약 후보자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다음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왕치선 위원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후보자 선정이 확정돼서 투표 중에는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자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서면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정으로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어떻게 기관을 이끌어 가실 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후 투표를 진행해서 찬성 의사를 수렴하면 위원장이 호선됩니다.

다음은 투표 전 사전협의를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가 단독 출마를 한 경우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셨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반 투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시행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득표 결과를 봤을 때 과반수 투표자가 없다면 상위 2인을 최종 후보자로 해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고,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 호선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먼저 구문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만약 의향이 있으시면 왕치선 위원님 그리고 왕치선 위원님께서도 의향이 있으면 다른 분의 순서로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새로 임명되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의견을 들어보죠.

왕치선 위원 :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왕치선 위원 : 저희가 금요일에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무처장님께 새로 오시는 위원님들이 선임되었는지에 대해 재차 여쭙봤고요. 왜냐하면, 월요일 오전에 임명장을 받고 오셔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문제는 어느 분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저희한테 이 자리에서 호선을 하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난감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전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호선하신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다수의 위원님들이, 저희도 실은 모르지만 서로 잘 모르는 와중에 저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3년간 이끌어주실 위원장님을 선임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일요일 저녁까지 오지 말라는 전화가 안 와서 “진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위원장에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도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호선을 해서 의결을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저희가 연극협회나 이런 협회들이 하듯이 캠페인도 하고 본인이 설명도 해 주시는 절차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기 전에 한번 여쭙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일정상 급하다. 항상 급하고 항상 빨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오늘 뽑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왕치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선임된 다음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내용도 잘 몰랐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겉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위원이나 위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아는 데 1년 반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실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급한 경우가 많은 과정에

서 결정은 위원들이 해야 되고요. 위원들은 잘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죠. 아까 OT에 대한 일정을 얘기하셨지만, 사실 OT를 한다고 해도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 가운데 누구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누군지를 모르면서 추천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한 분씩 의견을, 본인의 얘기, 위원회에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 등에 대해 듣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왕치선 위원 : 의사가 있는 분들만.

성기숙 위원 :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결 안건이 9대 위원장 호선의 건이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여기에 집중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의 위원님 말씀처럼 엄밀히 말하면 저희 3명은 제가 볼 때 8.5기가 아닌가 싶어요. 8기에서 절반을 했고 9기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사이에 정부도 바뀌었고 위원님 다수도 바뀌었고 저희는 소수자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뵙고 새롭게 직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에 집중해 보자면 저희는 8기 위원장님을 호선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정창호 팀장님께 진행에 따른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언급은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 새로운 위원장님이 호선되면 자동으로 전 위원장님은 퇴임하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운영을 위한 결재 사항이 있어서 아마 임명장을 받고 바로 위원장이 호선되어야 하는 실무적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했고요. 우리 9기에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위원장님을 맞이할 때는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검증 기간이 있었잖아요. 공개검증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저는 대략 “이런 분들이구나.”라는 짐작은 했지만 지금 말씀처럼 위원회에 지원하게 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실지 짧게라도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당연한 말씀이기는 한데요. 법률상 기관장과 위원님은 비상임이사님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사가 신속하게 결정되고 등기가 되어야 업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신임으로 오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약간 무례하게도 인감도장을 지참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법률상 2주 내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와 이사장의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지난 8기 위원회의 당초 임기가 올해 1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선임 일정이 지연되면서 신임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임명 이후로 의사결정이 미뤄진 게 많고 연도 중반이고 예산 시즌이기 때문에 후임 기관장님이 빨리 확정되어서 책임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금주 목요일에 전년도에 대한 경영평가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실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실사에서 기관평가 시 신임 기관장님이 오셔서 평가위원께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한시라도 의사결정자가 공백인 상황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난 선례를 봤을 때도 위촉 당일에 기관장이 호선돼서 선임된 사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오늘 위원장 호선을 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사무처 입장에서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오늘 위원장님 호선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차기에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그만하시죠. 왜냐하면 발언을 하실 때는 늘 공평하게 해야 될 문제니까요. 현재 새로 임명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결정하는 거니까 의견을 주시죠.

김대현 위원 : 안녕하세요, 문학 분야 위원으로 선임된 김대현입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호선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선제라는 게 아마 지난번에 처음 시작되었고 정병국 위원장 때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선제로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절차상으로 위원회에서 그냥 뽑으라는 게 아니라 위원 사이의 신뢰와 이해를 구축한 상태에서 어느 분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의 필드에서 검증을 받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업무 때문에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겠지만 그렇게 필요하다면 최소한 위원들이 누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그리고 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비전이나 방향성을 한번쯤 소개해야 저희가 추천을 하든 자천을 하든 아니면 투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 추천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과 소개를 짧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의견을 내실 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부드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대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기에 어떻게 왔고 뭘 위해서 왔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소신 발언. 왜냐하면 호선을 하고 추천하려고 하면 저분이 누구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요. 커리어 등을 짧게,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은 2분 정도로 짧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순서는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분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서요. 저는 8기 위원으로서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동안 했는데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회에 올 때 제가 그동안 있었던 한국지역문화학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제가 주로 했던 활동은 문학콘텐츠, 문화산업, 문화예술 등 30년간 했고요.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예술위원회에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 위원장이던

아니던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각 장르 위원들께서 굉장히 고귀하신 분이고 설명을 잘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데이터 자체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자료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활동에서 현장모니터링을 하든 심의를 하든 그런 것에 늘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 8기 위원회가 시작되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치선 위원 : 이럴 때만 나이순으로 해서 이렇게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왕치선이라고 하고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이론을 하고 작곡을 한다고 하면서 다녔다가 평가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저 스스로 음악 분야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에 지원해서 들어 오게 되었고요. 타 장르보다는 음악 분야는 성원들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점잖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투쟁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는 형태로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는 성향이 있는데요. 타 장르들의 치열함이 저희 장르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인데요. 사실 문학 분야의 위원님이 그동안 없었는데 김대현 위원님이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저에 대한 이력은 제공된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저는 사실 2005년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민간 자율기구인 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때, 김병익 위원장님이 초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당시 무용 분야 소위원으로 활동해서 위원회는 정서적으로 친숙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용은 아시다시피 기초예술이자 순수예술로 자본 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금, 특히 문예위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용 분야가 자립 또는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기의 특징이 장르 위원이 문학과 시각예술을 제외하고 2인씩 오셔서 순수예술 기구로서 5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정체성을 더 충실히 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님들과 보다 치열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공정한 지원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문학 분야 김대현입니다. 저는 원래 문학평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까 성기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6기와 7기에서 현장소통소위원회 소위 위원을 했고요. 지난 8기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편집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예술위원회의 여러 정책 담론을 많이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초예술 범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게임 등 흔히 말하는 전통 장르들이 해체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고요. 또는 AI 등 기술이 발전해서 창작 조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요. 예술의 공공성 사회적 측면에서 기후생태위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런 현장의 담론과 동시에 그러니까 기초예술 장르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공공성, 기초예술이 확산되는 케이아트 예술 환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상연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상연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19년 근무를 하다가 9~10년 전에 전남대학이라는 지역 국립대학의 교수로 부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교육이나 사업을 하고 서울에서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반반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현장 예술가로서 그리고 청년 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모형을 만들다가 청년 예술가들의 생존을 위해서 시민 예술에 관심이 생겼고요. 시민 예술을 분석하다가 예술계의 기초적인 생태계 구축 그러니까 자생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제도가 없이도 예술가가 생존할 수 있는가를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과 범위 내에서 혹은 거기에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서 타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 구조를 통해서 사업의 모형을 만들어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예술가가 취업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방향 쪽의 일을 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예술가들의 생존전략에 대한 지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감사합니다. 문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문삼화 위원 : 안녕하세요, 연극 위원인 문삼화입니다. 저는 전업 연출로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원금에 대해서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피부에 와닿는 위치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결국은 생존과 자립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는 창작자 중심이고 창작자 위주의 지원인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것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각이 약간 옮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객을 확보하려면 우리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연극계의 선배 자리가 돼서 선배가 이런 것을 해 줘야 후배들이 저보다는 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위원장 출마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되시던 저는 열심히 서포트하고 잘할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첫날이라서 짝히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말을 해야 되겠

습니다.

사전에 위원들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오늘은 인상 비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호선은 사실 인상을 보고 하는 것밖에 안 돼서요. 하다못해 3박 4일이나 2박 3일 워크숍에 간 다음에 뽑는다거나..... 사실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일정표를 보고 “어라? 신기가 있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위원회 뜻에 따라서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불합리함을 행정의 이유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감사합니다. 서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서영수 위원 : 반갑습니다. 서영수라고 합니다. 연극 분야 위원으로 선정되었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연을 말씀드리면 1기 예술위원회 지역문화 소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술 정책, 예술의 힘 등에 관여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대학에 다닐 때 탈반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바로 극단 활동을 해서 12년간 부산에 있는 극단에서 대표도 하고 기획도 했어요. 그 이후 부산에서 계속 현장 활동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부산시가 하는 축제나 문화예술에 깊이 관련해서 15년 이상 그쪽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행정 그리고 예술 현장을 두루 경험했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문화재단이나, 그리고 제가 또 뜻한 바가 있어서 기초문화재단 쪽의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전혀 연고가 없는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영덕군에 가서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제가 만들어서 초대 상임이사도 하고 구미에서 문화도시센터장도 했습니다. 제 역할은 어차피 현장과 행정을 잇는 역할에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만 바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예술위 내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부 부처 중에서 문체부 산하기관이 60여 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 산하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률적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엉망진창입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더라도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관행, 습성, 관치행정, 칸막이 행정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가장 가깝게 협력해야 될 기관들. 이를테면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사실은 점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기관들에 대한 구조개혁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예술위 내에서 먼저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문화계로 확산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감사합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 안녕하세요, 시각 분야 이범헌입니다. 9기 위원회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계 현장 그리고 단체 그리고 부정기적인 공공기관들의 문화예술 관련한 정책에 많은 참여와 체험을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독임 체제에서 위

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복수추천임명제를 거치고 위원회 호선제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회 제도라는 특성은 장단점이 있지만 9기까지 이끌어온 업적들에 대해서도 평가할 부분과 개선, 혁신해야 할 부분이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2005년도 이후 제9기까지 위원회 제도를 조금 더 정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위원회의 역할, 기초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제, 창작 예술 전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 관행적인 장르적인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비전적인 장르의 융합, 복합적인 비전까지 감안한다면 위원회는 향후 K-문화 강국으로 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소위의 위원이나 평가위원 등 구체적인 활동도 한 바가 있으면서 저는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로서 현장 활동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이사를 맡아 하면서 장르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 그리고 한국예총 회장을 하면서 10개 기초예술 분야의 모든 분야에 대한 현안과 방향. 그리고 중앙부처로서 문체부의 방향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소명감을 갖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모든 기초예술 분야 전 장르에 걸쳐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제도 심의와 방법 그리고 운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마침 8기 위원회 전임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토론과 집약적인 방향 모색을 한다면 역대 없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이 되고 3년 임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점도 현재 국민주권 정부의 K-문화강국, K-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간다면 3년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소명감을 갖습니다. 저의 역량과 혹은 시각예술 분야 이외에 전 장르에서 경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임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욱 위원 : 안녕하세요, 임영욱입니다. 저는 전통예술 분야에서 대본을 쓰고 연출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나 창작이나 가리지 않고 의욕적으로 해 왔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무용이나 축제 쪽에서도 연출을 맡아 왔습니다. 활동한 기간을 생각하면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전통예술은 정말 비약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새로운 세대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구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크고요. 실제로 그에 대한 성과와 호응들로 발전해 왔고요. 특히 최근에 K-컬처, K-Art 열풍을 맞아 비로소 비약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유사 이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확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실제로 지난 시간의 성과, 성취 등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분히 기획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확장이 빨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미학적인 측면이나 예술의 수월성 부분들, 다양성. 그런 역량들은 약간 도외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다음 후속 세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예술인 복지, 복지를 넘어서 향유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다음은 진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솔 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플레직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플레직이라는 공연 기획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지루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자기소개를 빨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공부하고 독일의 만하임국립음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현재 쓰여 있는 대로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이나 겸임교수, 상임지휘자 등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젊은 편이잖아요. 제가 청년 예술인이라고 하기에는 몇 년 안 남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들의 지원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플레직 같은 경우는 서브컬처 그러니까 한국 게임이나 해외 게임,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것을 순수예술 공연화로 직결해서 공연을 창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술에 대해서 청년들도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 보면 게임을 해 본 적 없는 세대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는 세대도 있고요. 다양한 세대 간 갈등 등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새로운 예술 문화를 같이 창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차지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차지언 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 분야의 차지언입니다. 저도 먼저 문삼화 위원님처럼 저도 위원장 출마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와 제 의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무용 전공을 하고 난 후에 전통춤을 추면서 너무 오랜 세월 사회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학문적인 역량이 굉장히 필요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후세대들에게 학문적 역량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통춤을 전승하고 그 상황에서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춤을 추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신 작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회와 싸우는 게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예술인들 특히 순수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지원금 하나를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촉식을 할 때 장관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기초예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관객을 확보하려고 많이 싸워봤지만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은 변화와 재해석, 재창조도 필요하지만, 그대로의 보존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위원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제가 무용을 계속했지만, 무용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전통 예술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분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작품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잘 들어주고 여러분께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고맙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잠시 예전에 했던 게 회상되는데요. 연륜도 많고 고견도 많으신데요. 현장에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위원들과 옆으로 가는 입장이고 리드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이 어떤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위원들이 공동 의사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진행하나? 그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과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직원과의 몫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머릿속에 와 닿으면서 가슴이 좀 뻥 뚫리기보다는 답답하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다 마쳤는데요. 아까도 문삼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워크숍을 하면 참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지금은 후보자 추천이나 자천 등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짧게 해도 될까요?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성기숙 위원 : 지금은 추천을 하시고요. 그분이 의사가 있고 단수 추천일 경우에는 과반수로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기본적으로 호선이라고 하면 사무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무기명 투표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제가 봐 온 결과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다수결로 손을 드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아니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참고로 저희가 무기명 투표를 택한 것은 국회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추천을 하시죠. 아니면 안 하실 분만 손을 드시면 더 빨리 되겠죠.

구문모 위원장 직무대행 : 저 같은 경우는 임기가 많지는 않지만, 굳이 안 하겠다고 할 의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위원장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 표명을 해 보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자천을 하실거면 그 자리에서 비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송시경 사무처장 : 예. 그러면 왕치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왕치선 위원님께서 주관을 해 주시고요. 대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허락을 얻고 사무처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추천 내지는 자천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

기 바랍니다.

(11시 58분 왕치선 위원 의장석으로 이동)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천도 좋고 타천도 좋고 순서에 상관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이유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작가로서 활동해 오셨고요. 한국미협이나 한국예총의 이사장을 하시면서 행정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술인들의 치열한 예술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고단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술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또 전환과 혁신에 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범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서영수 위원님께서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없으신가요? 아까 의장석에서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문모 위원 :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 8기 위원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의견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 반 동안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잠깐만요. 구 위원님 지금은 추천까지만 하시고 수락은 차후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예. 왜냐하면 서영수 위원님께서 왜 추천했는지를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추천을 왜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죠.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죄송합니다.

구문모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아까 다른 분들께서 시스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술가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직원들과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추천한다고 하면 개인으로서 아무리 제 의견이 좋다고 하더라도 위원들과 직원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차원에서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추천이 없으십니까? 오늘이 지나면 회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문모 위원님께서 추천사와 함께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수락하시는 여부를 제가 여쭙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범헌 위원님께서 서영수 위원님의 추천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님이 수락하시는지? 그리고 수락하시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 서영수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추천해 주신 의미에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추천해 주신 뜻에 부합하는 현장 활동과 정책 활동,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혹은 또 창작 문화예술계의 적지 않은 미래 기반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위원장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러한 역할들을 철저히 하고 기존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규정 성격과 정체성 그리고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감대에 이끌어온 전 직원과 위원회가 함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초 창작 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또 정책 그리고 결국은 국민 향유로 나가기까지의 과정들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조율의 역할, 합리적인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체계는 영광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 문예진흥기금으로 각종 문예진흥기금화가 이루어졌던 게 폐지가 되고 위원회 제도로 전환되면서 이제 5,000억 정도의 기금이 거의 500억 이하밖에 남지 않은 수준에 있는 현실을 문체부의 예산 속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 또 체육 기금에서 오는 그러한 것. 그리고 기존에 복권이나 여러 진흥 기금을 통해서 했던 것이 폐지됨으로 오는 대안이 가장 중요한 현실로 보여집니다. 올해 당장 정기예산을 짜는 게 중요한데 위원회에서 그런 대의를 모아 저 역시 일조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감사합니다. 구문모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구문모 위원 : 없습니다.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예. 더 이상 후보자 추천이 없으면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의 향후 계획까지 들었고 이제는 두 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투표 시작)

(12시 08분 개표 시작)

왕치선 위원장 직무대행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투표 결과 후보자 이범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 (이범헌 위원 10표, 구문모 위원 1표)가 찬성하셨습니다. 하여 이범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호선에 대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9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범헌 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1분 이범현 위원장 의장석으로 이동)

이범현 위원장 : 제9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제9기 위원장에 호선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역량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최선을 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문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수평적 구조의 위원회 특성상 의사결정의 여러 방향을 토론에 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이 위원회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을 선도 할 수 있는 9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현안들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나, 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현안과 일정 조율을 통해서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선두에 서서 일을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일 시급한 것이 조직의 여러 현안과 올해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회와 공동 공유를 하고 각 부처 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 9기 위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미래지향적인 역할론을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현안에 대한 부분. 문체부 일반예산에 편입되지 못하고 구걸하듯 체육 기금에서 또 일부 복권 기금에서 매년 예산 편성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안을 명확히 파악하면 국회로부터 독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제9기 3년 동안 임기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 저희 9기에서 그런 기반의 토대를 닦아놓으면 그것이야말로 기초예술 분야에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생길 수 있고, 그 예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대하고 참고 희망을 갖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신 만큼 대의적인 부분만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다시 한번 호선에 지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 의사진행 사항에 따라서 짧지 않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바로 이어서 현안에 대한 간단한 결정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이범현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현 위원장 : 앞서 안건 절차는 진행했구요. 지금은 차기 위원회의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는 일정이 필요합니다. 전체회의는 그동안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넷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은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논을 통해서 일정을 잡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은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의논해서 정해지면 위원회 개최 이전에 OT를 해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OT는 신임 위원 8인을 기준으로 사무처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3인의 위원님은 어느 정도 진행된 내용이 인지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에 대한 날짜가 중요한데 다음 위원회 날짜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월별로 보면 4주도 있고 5주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월 29일이 되겠고요. 시간은 통상 2시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나주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나주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무처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현 위원 : 예.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이범현 위원 : 그러면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6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이범현 위원 : 그러면 우선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특이 사항은 없으시죠?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2일 전체회의를 할 때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를 받으실 텐데 생소하실 겁니다. OT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저희 쪽에 말씀하시거나 관련 팀장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속기록에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 폐 회 선 언

이범현 위원장 : 그러면 이것으로 제9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시회의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 종료)